



**특집** \_ 모국-거주국 가교 역할 인재 육성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18년간 790명 배출

**화제** \_ 미국 뉴잉글랜드 한글학교 행사에 1천 명 모인 까닭 개교 40주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 6세기 신라의 발전상 기록



진흥왕 순수비가 있던 북한산 비봉의 원래 자리에 복제해 세운 비



북한산 비봉에 있던 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는 신라 제24대 국왕인 진흥왕(재위 540~576)이 북한산에 세운 비이다. 원래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비봉(碑峰)에 있었으나 훼손이 심각한 점을 고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긴 후 현장에는 화강암으로 복제한 비를 세워놓았다.

직사각형의 다듬어진 돌을 사용했으며, 자연 암반 위에 2단의 층을 만들고 세웠다. 윗부분이 일부 없어졌는데, 현재 남아 있는 비의 크기는 높이 1.54m, 너비 69cm이다. 비문은 12행으로 각 행 21자 혹은 22자이나, 읽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글자가 심각히 마멸돼 육안으로는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이 비는 조선 순조 16년(1816)에 비봉에 오른 추사 김정희가 판독해 세상에 알려졌다. 김정희는 2차에 걸친 현지 조사와 탁본 조사를 통해 60여 자를 밝혀냈다.

6세기 때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와 연합해 고구려의 영역이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동맹이던 백제마저 기습 공격해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한다. 또한 북으로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해 낙동강 서쪽을 장악했다.

진흥왕 순수비는 확대된 영토를 진흥왕이 직접 순수하면서 세운 것으로 현재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국보 제33호), 북한산 순수비(국보 제3호), 마운령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등 4개가 발견됐다. 왕이 지방을 방문한 목적과 비를 세우게 된 까닭 등이 기록돼 있는 진흥왕 순수비는 6세기 중엽 신라의 발전상과 이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창**



###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양국 간 가교 역할에 힘써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우수한 재외동포 학생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   |
|-----------|---------------------|---|
| <b>02</b> | <b>한국의 얼</b>        |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
| <b>04</b> | <b>특집</b>           | 모국-거주국 가교 역할 인재 육성<br>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18년간 790명 배출   |
| <b>06</b> | <b>동포 소식</b>        | 재일한국상공회의소 10년 분규 끝내고 통합 이뤘 외  |
| <b>09</b> | <b>동포 캘린더</b>       | 버지니아 주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1주년 행사 외   |
| <b>10</b> | <b>기획</b>           | 농업 이민으로 시작된 파라과이 한인사회<br>한류 영향으로 자긍심 고조   |
| <b>12</b> | <b>화제</b>           | 미국 뉴잉글랜드 한글학교 행사에 1천 명 모인 까닭<br>개교 40주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
| <b>14</b> | <b>글로벌 코리안</b>      |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주지사 퍼스트레이디가 된 유미 호건 여사<br>가나 국립병원에 병동 지어 기증하는 임도재 아·중동한인연합회장<br>아베 미 의회 연설 반대 청원 운동 주도한 이정실 워싱턴정대위 회장 |
| <b>16</b> | <b>지구촌 통신문</b>      | 캐나다 오타와 원주민 학교에 태권도 수업 개설<br>원주민과 교류 협력 첫발  |
| <b>17</b> | <b>동포정책 Q&amp;A</b> | 자신도 모르게 복수국적자 국적 취득<br>병역의무 조항 유념해야   |
| <b>18</b> | <b>한민족 공감</b>       | 아랍에미리트에 한국문화원 설립한다<br>중동에 한류 확산 디딤돌 마련  |
| <b>19</b> | <b>현장의 목소리</b>      | 모국과의 네트워크에 힘입어 성공하는 고려인<br>김상욱 _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상무위원  |
| <b>20</b> | <b>OKF 뉴스</b>       | 조규형 동포재단 이사장, 재외공관장들에게 협조 당부 외  |
| <b>22</b> | <b>동포문학</b>         | 보이지 않는 태극기<br>변수현 _ 일본_ 2014 재외동포문학상 초등 부문 우수상  |
| <b>23</b> | <b>우리말 배워봅시다</b>    |   |
| <b>24</b> | <b>고향의 맛·멋</b>      | 흥어 사촌이면서 흥어와 다른 충남 당진의 간재미회<br>즐거하고 고소한 바다의 맛   |
| <b>26</b> | <b>재단 공지</b>        |   |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국-거주국 가교 역할 인재 육성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18년간 790명 배출



**재**외동포재단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학생이 고국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2015년도 초청 장학생' 74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3월 5일 서울 서초동 엘타워에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및 학사지침 설명회'에 참석해 장학증서를 받고 유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조구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재단 장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수학해 꿈을 이루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훌륭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모국과 거주국의 상생 발전을 돕는 가교 역할에도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중국 출신의 연세대 치의학과 박사

과정 박용욱 등 총 32개국 74명(학사과정 28개국 34명, 석·박사과정 10개국 40명)이다. 이들은 2014년 5월에 선발돼 2014년 2학기, 2015년도 1학기에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양국 간 가교 역할에 힘쓸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우수한 재외동포 학생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97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래 79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교수, 연구원, 기업가,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모국과 거주국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들 장학생을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CIS 지역이 그 다음이다. 그 밖에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고루 분포돼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만 25세 미만으로 거주국에서 초·중·

1. 재외동포재단은 3월 5일 서울 서초동 엘타워에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 장학증서를 받을 학생은 중국 출신의 연세대 치의학과 박사과정 박용욱 학생 등 총 32개국 74명(학사과정 28개국 34명, 석·박사과정 10개국 40명)이다.
3. 재외동포재단은 모국 초청 장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역사문화 체험'을 실시해 모국 배우기를 돕고 있다.



2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주국의 국적,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을 지녀야 한다.

현재 재학 중인 장학생은 200여 명으로 재단은 이들에게 학비 외에도 생활비, 건강보험료, 어학연수 비용, 한국 역사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하얼빈 출신으로 장학생에 선발돼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동포 5세 박룡(28·남) 씨는 "일본과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을 살려 중국에서 한국 경제 전문가로 활약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모국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돼 많은 혜택을 받게 된 만큼 돌아가서 조선족의 위상도 높이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에 충실할 작정"이라며 "베이징에서 교편을 잡아 제2, 제3의 한국 유

학파가 나오도록 돕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고려대 노어노문학부에 입학한 몽골 출신의 엄도영(19·여) 씨는 "6살에 이민해 모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낯설지만 한민족이라는 것이 무척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공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체험 등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낼 계획"이라고 즐거워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문의 심화라는 목표와 모국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려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유학을 지원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소수만을 선발하는 장학생에 뽑힌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재단은 초청 장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졸업 때까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등 뒷받침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동포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교육사업의 하나로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우수 동포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CIS 지역 등 낙후된 지역 우수 동포 학생들을 지원해 동포사회 역량을 키우고 이들을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고려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대학에 부임한 부경대 예동근 교수는 "공부를 마친 뒤 귀국하거나 국내에 남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자신의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는지 살펴서 준비해야 한다"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시야를 넓혀 다양한 취업 자리를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 교수는 "초청 장학생사업이 앞으로 20년, 30년 지속되면 졸업생도 1천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들의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유학생 선·후배 간 지속적인 연락망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학생 출신으로 삼부토건에 입사한 차바실리 씨나 대외경제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취업한 김부용 씨 등 장학생 출신 선배들은 "동포 차세대는 모국이 낯설기도 해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때론 외로움 등으로 힘들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서툰 한국어 등으로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 때는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 재일한국상공회의소 10년 분규 끝내고 통합 이뤄

지난해 2월 통합에 합의하고도 분규 상태를 지속해온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산하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민단한상)와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법인한상)가 3월 27일 마침내 최종합의서를 도출하고 통합을 이뤘다. 민단한상의 홍채식 회장과 법인한상의 박충홍 회장은 이날 도쿄의 주일대사관에서 '통합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출범에 따른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 김용길 총영사와 오공태 민단 단장도 함께 서명했다.

최종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기존 정관을 통합 단체의 정관으로 대체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통합 출범 총회를 개최한다. 초대



재일한국상의 통합 회장에 추대된 유재근 상임고문

회장에는 역대 회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추대한다. 추천위는 상임고문인 유재근(73) 산케이(三經)그룹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회장단의 구성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고, 양측으로부터 35명씩 추천을 받아 총 70명(회장은 제외)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 단체는 민단의 산하단체로 두기로 했다.

상공회의소는 원래 민단 산하단체였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최종태 현 상임고문의 회장 당선을 전후해 내용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양측은 화해 없이 평행선을 걷던 중 최상임고문(당시 회장) 측이 상공회의소의 일반사단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각자의 길로 들어섰다. 양측은 2013년 12월 통합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10년간의 분규를 끝내고 마침내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

## 미국 한인단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씬(seal) 제작

미국 뉴저지 주 한인이 중심이 돼 설립한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박물관(www.ushmocw.org)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씬(seal)을 제작해 판매한다.

박물관 측은 2015년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첫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씬 4천 시트를 최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씬이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모 씬 제작에는 한국의 유명 일러스트들이 참여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미국 한인단체가 제작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씬

인권, 아픔, 상처, 사랑, 희망, 추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회색 바탕에 붓 자국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한국어와 영어 등 두 가지 언어로 만들어진 사이버 역사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 피해자 증언, 일본군 위안부 자료, 추모·격려의 글, 갤러리, 위안부 관련 뉴스 및 행사, 후원 코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 코너에는 위안부들이 강제로 연행된 이후부터 위안소 생활, 해방 이후의 삶 등이 담겨 있으며 피해자 증언 코너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영상 증언 등이 수록돼 있다. 갤러리에는 위안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올라 있고 후원 코너를 통해 위안부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이탈리아서 ‘입양인과 함께 하는 한국의 밤’ 행사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입양된 입양인들과 이탈리아 양부모들을 초청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입양인과 함께하는 한국의 밤’ 행사가 3월 1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다.

이 행사를 주최한 주 밀라노 총영사관의 장재복 총영사는 “한국 바로 알기와 뿌리 찾기 등 한인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입양인들의 친목, 이탈리아 현지 사회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장 총영사는 “이 행사엔 한인 입양인은 물론 이탈리아 부모들도 함께 참석해 입양인 가족



밀라노에서 열린 ‘입양인과 함께하는 한국의 밤’ 행사

의 단합을 도모하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통일정책,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밀라노대 조민상 박사의 강

연, 한국 홍보 동영상 상영,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동포 성악가들의 한국 가곡 공연, 한식 만찬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맛을 체험했다.

이탈리아에 있는 한인 입양인은 4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다른 서유럽 국가 중 적은 편에 속한다. 이탈리아 입양 한인 출신으로 부부가 된 김수복·이영미 씨가 같은 처지의 입양인들을 규합해 2011

년에 창립한 ‘이탈리아 한인 입양인 문화협회(KOR.I.A)’가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입양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부 개설 기념식

해외 첫 한국학부가 베트남 국립대학에 문을 열었다.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은 3월 10일 교내 그레이트 홀에서 한국학부 개설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대학은 지난 1월 한국학과를 학부로 승격시키고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사회과, 한국경제·정치·외교과 등 3개의 전공학과를 설치했다.

한국학과는 1992년 12월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국학 연구와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해 1994년 6월 신설됐다. 그동안 매년 약 7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중 약 90%가 베트남 내 한국 기



베트남 국립대학인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은 3월 10일 한국학부 개설 기념식을 열었다.

업·기관, 한·베트남 협력사업 기관·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다. 나머지 10%가량은 석·박사 과정을 거쳐 대학 강사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3월 동양학부 소속에서 총장 직속 학과로 변경됐고 이후 5년 만에 학부로 승격됐다. 한국학부의 교수진은 24명이며 재학생은 복수 전공자를 포함해 500여 명이다. 한국학부는 교육·연구 과제로 한·베트남 상호 이해 증진,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상흔 치유,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통합, 한국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을 제시했다.

판티투히엔 초대 한국학부장은 “한국학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권위 있는 한국학 교육·연구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독일 드레스덴 시민공원 '한국광장' 명명

독일 드레스덴 시에 조성된 시민공원이 '한국광장' (Koreanischer Platz)으로 이름 붙여졌다. 드레스덴은 작센 주 소재 도시로 독일 통일 후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옛 동독의 대표 도시다.

김재신 주독 한국대사와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 부시장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은 3월 23일 드레스덴 현지에서 명명 기념식을 열고 이 한국광장이 양국 우호 협력 증진의 또 다른 상징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사는 기념사에서 "한국광장 명명에는 한반도 통일의 희망도 담겨 있다"면서 "이런 일을 계기로 한국에



독일 드레스덴 부시장이 3월 23일 열린 '한국광장' 명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서도 드레스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드레스덴 한국광장은 1천750m<sup>2</sup> 크기의

도심 공원 형태로 조성됐다. 도심부에서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심 전철역 앞에 있고 관광 명소인 츠빙거 궁전에서도 도보로 닿을 수 있다.

주독 한국대사관은 "독일 등 유럽 국가 대부분에선 광장이 지역사회의 중심부로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다"면서 "이 광장이 독일 국민은 물론 드레스덴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과 우호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브라질 동포 상공인 '2015 브라질 경제 전망' 포럼 개최

브라질·한국 상공회의소(KOCHAM, 코참)는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과 함께 3월 17일 상파울루 시내 호텔에서 '2015 브라질 경제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구본우 브라질 주재 대사와 현지 진출 기업 대표, 한인 동포 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유명 경제평론가 주제 파울루 쿠페르는 "내년에도 경제의 구조 조정을 위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경제지표는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쿠페르는 "브라질 경제는 역동성과 다양성,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인프라 사업 수요 전



브라질·한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 포럼에는 한인 동포 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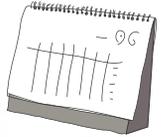
망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웨우베르 바라우 전 개발산업통상부 차관보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

의 정책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또는 적어도 2017년부터는 경제 환경이 분명히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 출범한 호세프 2기 정부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현대화, 조세 시스템 정비 등을 목표로 한 경제 구조개혁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해알화 가치 하락세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12년 11월에 출범한 브라질·한국 상공회의소는 주재 상사와 동포기업인 단체를 통합한 기구다.



### 버지니아 주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1주년 행사

미국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회장 이정실)는 5월 말에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 정부 청사의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평화기대' 제막식 1주년을 맞아 한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또 5월 초에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와 함께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연다. 정신대대책위원회는 세미나, 전시, 출판, 영화 제작 등을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 제4회 캐나다 토론토 한국영화제 개최

제4회 캐나다 토론토 한국영화제가 5월 26~30일 토론토대 이니스타운 홀에서 '끈'을 주제로 열린다. 영화제는 캐나다 한인이나 재외동포 감독들이 제작한 45분 이내의 단편을 모아 상영하는 것으로 150편이 넘는 영화가 출품됐다. 영화제준비위 측은 슬로건을 '타이스 댓 바인드(Ties That Bind)', 메인 주제를 관계·구속·희망 등의 의미를 지닌 '끈'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영화제는 '섹스킹'으로 작품상을 받은 신주환 감독, '9월이 지나면'(감독 고희동)으로 주목을 받은 배우 임지연(사진) 등 신인 감독과 배우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 재일동포 예술인들이 도쿄 한국문화원서 릴레이 공연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은 5월 11일부터 연말까지 재일동포 예술인을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1일 김희옥 한국전통무용연구소 소장에 이어 피아노&토크 가수 사와 도모에(6월 5일), 클래식 기타계의 신예 박규희(7월 28일), 단소 연주의 명인 이동신(8월 25일), 12현·21현·25현 가야금을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김일(10월 30일), 지난해 흥성 가무의 전국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한 전통무용가 유미자(11월 16일)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한국문화원 홈페이지(http://www.koreanculture.jp)에서 무료 관람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 6월 서울서 개최

재외한인간호사회(회장 유분자)가 주관하는 제2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미국·호주·노르웨이·핀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간호사 250여 명이 참가한다. 총회와 함께 전문문화 체험 등도 진행되며 국내 병원과 간호대학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19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막하는 세계간호사대회(ICN)에도 참가한다.

### 재독 여류 한인 동포 영화감독 신작 개봉

2006년 헤비메탈 음악 팬들이 순례하는 독일 소도시 바켄에 관한 첫 작품 '풀 메탈 빌리지'로 헤센 영화상과 슬레지엔 홀슈타인 영화제 최고 다큐멘터리상을 연속 수상하면서 주목받은 동포 영화감독 조성형(49) 씨가 6월 25일 새로운 다큐멘터리 영화로 독일 관객을 만난다. 신작 '사랑과 약혼, 그리고 이별'은 과거 동독에서 공부하던 북한 유학생 남자와 동독인 여자의 이야기다. 조 감독은 한국 남해의 독일마을을 배경으로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고향 이야기를 다룬 '그리움의 종착역'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7월 뉴저지서 학술대회 연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최미영)는 7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뉴저지 티넥 메리어트호텔에서 제3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20년 만에 뉴욕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NAKS 소속 교사, 한국 정부, 교육 단체 등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NAKS는 미국 전역 14개 지역협의회 산하에 1천여 개 한글학교를 둔 단체. 미국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고, 소속 학교에서 3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 농업 이민으로 시작된 파라과이 한인사회 한류 영향으로 자공심 고조



남미 파라과이는 인구 약 650만 명의 작은 내륙 국가로, 2013년 현재 5천126명의 한국 동포가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지역에 살고 있다. 1962년 해외이주법이 공포되면서 이민의 물망에 오른 나라는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이었다. 한국 정부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관심을 보였던 나라는 파라과이였다. 정부는 1963년 7월 파라과이 유엔 수석대표를 초청해 파라과이로의 한국인 이주 가능성을 타진한 후 한국이민협회 직원 2명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심이 나서서 파라과이 이민에 힘을 기울였다. 파라과이의 한인 이민은 브라질 다음으로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20차레가 넘는 집단적 농업 이민을 통해 이주했다. 1965년 4월 22일 1차 이민 95명이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도착한 이후 계속해서 이민 길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인인 파라과이의 이민정책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파라과이에는 1985년

까지 남미에서 가장 많은 1만 7천여 명이 이민했다. 그러나 실제 거주 현황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 동포 수를 살펴보면 파라과이는 1985년의 거주자 수가 이민자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며, 1995년에도 1만 명을 넘지 못했다. 1969년 아르헨티나의 한인 중 파라과이 출신 이민자 수는 아르헨티나 순수 이민 인구의 3배에 달했다.

이민 도중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동포들은 원래 목적대로 파라과이에 정착해 영농을 시도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현지 농장을 구입, 1차 농업 이민자들을 수용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많은 동포가 농사 대신 양계업에 도전했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농업 이민으로 왔던 한인들은 식품점, 식당 등 다양한 직종에 진출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할부 판매로 주로 옷을 많이 팔았고 90년대에는 옷 가게가 많이 생겼다. 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이 시기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1. 2014년 6월 11일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숙소 앞에서 파라과이 동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표팀을 기다리고 있다.
2.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정원에 설치한 '우호의 종'이 팔각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2011년 12월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파라과이 우호의 종' 기증식이 열렸다.
4. 한국 정부가 파라과이에 무상 원조로 대형 종합병원을 신축하고 2012년 9월 10일 개원식을 열었다.
5. 국가기록원이 해외이주법 43주년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사진은 1976년 동포 자녀에게 국어책을 전달하는 모습



2



3

###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착에 성공

동포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고, 공휴일에도 일하는 부지런함을 과시하며 파라과이인의 근로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동포들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파라과이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민 2세의 주류 사회 진출도 괄목할 만하다. 시의회 의원, 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기사 등 각계에서 활약하는 젊은 한인이 늘고 있다.

현재의 재파라과이 한인회(회장 김광진·49)는 1966년 8월에 창립했다. 95명의 이민단이 파라과이에 도착한 지 1년 4개월 만에 한인회가 공식적인 법인단체로서 파라과이 내무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이다. 1976년에는 한인회 주관으로 한인회관에서 매주 토요일 아동 10명에게 한글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1977년에는 아동 수가 70명으로 증가하고 한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듬해에는 교사 4명, 학생 200명으로 늘어났고, 첫 졸업식이 치러진 1980년에는 학생 수가 447명으로 늘어났다. 1981년에는 한글학교를 한인회에서 분리해 운영이사회를 따로 조직하고, 명칭도 재파한국학교로 바꾸었다. 1985년에는 중학교 과정을 신설했다.

2011년 12월 16일 파라과이 독립 20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파라과이 우호의 종' 기증식이 아순시온의 한국정원에서 열렸다. 우호의 종이 설치된 한국정원은 현지에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통 기법으로 제작된 팔각정, 석등, 장승 등이 설치돼 주변 경관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인회는 3.1절·광복절 행사, 음식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면서 K-POP 등으로 불어닥친 한류 열풍과 함께 한인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최근 한국 TV드라마의 인기를 타고 한류 팬클럽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한국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만 600여 명에 이른다. **창**



4



5

미국 뉴잉글랜드 한글학교 행사에 1천 명 모인 까닭

# 개교 40주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된 한글학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이다. 매사추세츠 주 뉴턴에 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비영리재단으로 등록돼 있다.

이곳에서는 교사 130명이 50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순수 미국인 재학생도 60여 명에 달한다.

뉴잉글랜드는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매사추세츠·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버몬트·메인·뉴햄프셔 6개 주를 일컫는 지역이다. 한인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포함해 14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1975년 문을 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개교 4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5개의 주제를 설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글 동화 구연 및 동시 암송 대회, 12월 동요 부르기 대회에 이어 2월 21일 세 번째 행사인 '역사박물관·문화 체험관 개관 및 방문 행사'를 마련했다.

동화 구연 및 동시 암송 대회에는 47개 팀 1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지난 3회 대회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이번 동화 구연 대회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해 동화를 구연하면서 도움이

되는 교훈 등을 관객에게 정확히 실감나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관객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중학교 건물 내 250명을 수용하는 강당을 고쳐 역사박물관으로 꾸몄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힘을 합쳐 고분, 토기 등 전시품을 직접 만들거나 한국에서 모조품을 공수해 제1박물관(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발해까지)과 제2박물관(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에 나눠 전시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던 곳에 세워진 거가대교의 모형과 독도를 연계한 특별관도 만들었다.

## 단일 기관이 주최한 한인 행사로는 최대 인파

남일 교장은 "미국 대부분의 박물관에는 중국관과 일본관을 보고 난 뒤 맨 마지막에 한국관을 들르도록 배치돼 있을 뿐 아니라 한국관에 전시된 유물도 미술품·도자기·복식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늘 아쉬웠다"면서 "우리 역사를 보면 위대한 문화유산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우리나라가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교장은 적지 않은 인파가 모인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유산을 후세에게 보여줌으로써 한민족으





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이날 하루 동안 학부모와 지역 내 유명 인사 등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돌아갔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단일 기관이 주최한 한인 행사로는 최대 인파가 몰린 겁니다. 힘은 들었지만 마음이 뿌듯합니다.”

행사에는 이광석 보스턴 총영사관 영사, 한신우 보스턴한인회장, 김성혁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이경해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장, 한순용 재미한글학교협의회 뉴잉글랜드협의회장, 이충시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이사장, 장수인 보스턴합창단 단장 등 한인단체 대표를 비롯해 뉴턴시 시장, 도서관장, 교육부 관계자 등 현지 인사들이 참석했다.

교실에서 열린 한국 문화 체험 행사도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은 연 만들기, 세배하기, 제기차기 등 30가지의 전통 예절과 민속놀이를 체험했다. 행사 전날 교사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박물관 개관과 문화 체험 행사 준비를 했다. 행사는 일주일 전에 예정됐지만 때마침 폭설이 내려 연기됐던 터라 학생들의 기대는 더 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된 행사에 학생들은 대부분 한복을 입고 와 행사를 즐겼다.

남 교장은 “앞으로도 한국을 알리고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며, 박물관 유물과 자료 등을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순회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4번째 행사로는 4월 11일 제2회 독도 자랑대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독도 삼행시 짓기 대회와 역사 골든벨 퀴즈 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글이나 영문으로 독도 삼행시를 지어 최고상을 가리고, 역사 골든벨 퀴즈 대회에서는 개인 및 가족 대항전이 펼쳐진다. 학교 측은 수상자를 위해 아이패드 등 푸짐한 상품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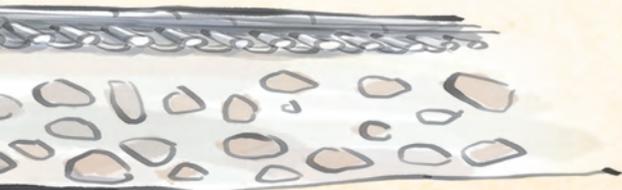
6월 13일에는 졸업식 겸 개교 기념식으로 개교 4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창**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월 21일 역사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실에서 열린 한국 문화 체험 행사



# GLOBAL KOREAN

##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주지사 퍼스트레이디가 된 유미 호건 여사 주 정부에 ‘한국계 수혈’ 숨은 역할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첫 주지사 퍼스트레이디가 된 유미 호건 여사

올 1월 21일 취임한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 사상 처음으로 김치냉장고가 입성했다. 한국계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 여사가 관저로 들어오면서 예지위터 사택에 있던 한국산 김치냉장고를 가져온 것이다.

남편의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주지사 관저에 김치냉장고를 가져다 놓은 그는 주 정부 운영에 새로운 ‘한류(韓流)’의 바람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 첫 한인 출신 장관으로 지미 리(한국명 이형

모·소수계 행정부 장관) 씨를 임명한 뒤 “리 장관의 기용을 계기로 상당수 한인이 주 정부에 들어왔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가 지난해 선거 과정은 물론 주지사 취임 이후에도 적극적인 내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계 부인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면서 “한인사회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우려를 경청하며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호건 여사는 한인사회와 관련한 예민한 얘기가 거론되면 “부인이 한국계라고 한인 이슈만 챙기느냐는 소리를 들을까 겁난다”며 손사래를 쳤다. 다만, 호건 여사는 메릴랜드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사회, 나아가 아시아계 인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상 풍경화로 유명한 동양화가이자 메릴랜드 미대(MICA) 교수인 호건 여사는 2004년 부동산 업자였던 호건 주지사와 재혼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남편의 선출직 도전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 가나 국립병원에 병동 지어 기증하는 임도재 아·중동한인연합회장 아프리카서 가장 성공한 한상

‘코피 임(KOFI YIM)’ 수술실.

아프리카 서부 가나의 항구도시 테마에 있는 국립제너럴병원 안과 병동 수술실 앞에 걸린 명패의 글귀다. 2009년 현지 국립병원 내에 안과 병동을 신축, 기증한 임도재(63·글로벌텍 엔지니어리미티드 대표)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병원 측이 붙인 것이다.

가나 토착어로 ‘금요일에 태어난 소년’을 뜻하는 ‘코피’

는 금요일 태어난 임 회장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 22년째 가나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임 회장이 치료 시설이 미비해 백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으로 실명하는 현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사재를 털어 안과 병동을 건립한 것이다. 병동을 기증한 데 이어 이 병동을 통해 국내 안과 자원 봉사단체인 비전케어와 함께 현지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안과 진료도 했다.



임 회장은 금년 내 약 5억 원을 들여 국립병원에 없는 이비 인후과와 치과 병동도 착공, 내년에 완공해 기증할 예정이며 현재 가나 당국과 부지 문제를 협의 중이다.

임 회장은 앞서 가나 한인회장 재임 중 사재 7억 원을 기부, 한인회 숙원 사업이던 한인회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22년 전 SK건설 지사장으로 가나에 파견 나갔다가 5년 만에 독립한 임 회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플랜트 건설업계 1위, 석유 저장시설 유지·보수 분야 90% 독점 계약이라는 탄탄한 기업을 일궜다. 그는 연간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아프리카 최대 한상'으로 불리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한상'으로 불리는 임도재(63·글로벌엔지니어링미티드 대표)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

## 아베 미 의회 연설 반대 청원 운동 주도한 이정실 워싱턴정대위 회장 “진정한 사죄·반성 끌어내는 게 목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됐다. 아베 총리의 연설을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온 한인 단체들은 반대 시위와 함께 주요 언론에 아베 총리 연설 규탄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워싱턴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의 이정실 회장은 시민참여센터(회장 김동찬)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3월 18일 워싱턴DC 미국 의사당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실을 방문해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베이너 의장실에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힐(The Hill)에 실린 '아베 총리는 사과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여 주고 6천 명이 넘는 한인이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내역을 소개했다. 또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지한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50곳이 넘는 하원의원실을 방문해 서한을 건넸다.

정대위는 서한에서 “미국 하원이 2007년 통과시킨 위안부 결의안을 무시하는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는 미국 사람이 대표해온 가치에 위배된다”며 “아베 총리가 역사수정주의를 철회하고 전쟁 희생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의



이정실 워싱턴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회장이 3월 18일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회 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지워싱턴대 미술사학과 교수인 이 회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 1월 워싱턴 정대위 5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이번 운동은 단순히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장]**

# 캐나다 오타와 원주민 학교에 태권도 수업 개설 원주민과 교류 협력 첫발

조재용 연합뉴스 밴쿠버 통신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이 오타와 원주민 학교에 태권도 수업 개설을 지원, 원주민과의 문화 교류에 나섰다. 캐나다의 유명 한인 태권도 사범인 이태은 씨와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2월 18일 오타와 소재 누나벗 원주민 학교를 방문하고 이 학교에 개설된 태권도 수업을 참관, 격려했다.

40여 년간 캐나다에 태권도를 전파해온 이 사범은 연방경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태권도 수업에서 주요 시범을 보이며 학생 지도를 시작했다. 이 사범은 “누나벗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수업 시간이 심신 단련과 함께 한국 문화도 알아가는 ‘문화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범은 지난 77년 4월 오타와에 정착, 태권도장을 개설한 이래 수많은 지역·연방 경찰, 총리경호실 경호원 등에게 태권도를 지도해왔으며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그는 태권도 전파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공로로 2008년 캐나다 정부가 수여한 ‘올해의 아시아인상’을 받는가 하면 오타와 시가 매년 5월 31일을 ‘이태은의 날’로 지정하는 등 현지에서 태권도 사부로 불리는 유명 인사다. 그는 오타와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사관은 지난 2013년 5월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캐나다 극지 원주민과 벌여온 협력 사업의 하나로 이 학교에 태권도 수업 개설을 주선, 지원했다. 대사관은 수업을 위해 누나벗 학교 로고가 새겨진 태권도복을 지원했으며 수업 후 불고기, 잡채, 김치 등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도 펼쳤다.

총리 경호관으로 활동 중인 이 학교 출신의 조지 헨리크 연방 장관은 “어린 시절 태권도를 배운 것이 경호관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



태권도 수업이 끝난 후 태권도 사범인 이태은(뒷줄 가운데) 씨와 대사관 관계자 등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캐나다의 유명 태권도 사범인 이태은 씨가 2014 세계한민족축전에서 각국 대표들과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 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대사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 로고가 찍힌 태권도복을 입고 수업하게 돼 기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캐나다와 북극 분야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미래 세대인 원주민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교류가 중요하다”며 “태권도뿐 아니라 북극 분야 인적 교류, 경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

## 자신도 모르게 복수국적자 국적 취득 병역의무 조항 유념해야

**복**수국적을 지닌 재미동포 2세들이 병역 문제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동포 2세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나중에 공직 진출 등에 제한을 받거나 미군에 지원했다가 병역의무 조항을 뒤늦게 알고 한국군에 입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수국적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해외 입양인들이 법무부 초청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된 사람을 말한다.

유효한 2개 이상의 국적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는 다르다. 국적법은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국민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가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 경우는 복수국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귀화·국적 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2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적법에서

인정하는 복수국적자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 2011년 925명에 이르렀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674명과 525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에는 79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며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국적 이탈 등을 선택

할 수 있는데 출생신고 등 서류 준비에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절차 등을 잘 살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므로 부모 중 한 명이 상이 한국 국적자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이른바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남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을 넘어서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았다.

한편 2011년부터 우수 인재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70명이 우수 인재로 선정돼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우수 인재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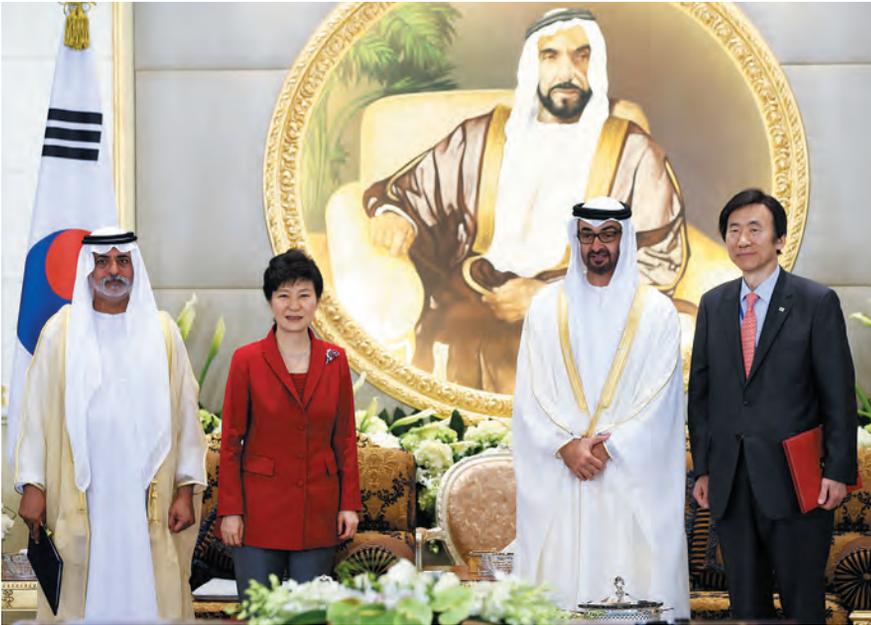
### Q.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였는데 국적 이탈 신고를 해 미국 시민권만 있는 상태이다. 국적 회복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나?

### A.

국적 회복을 하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적 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고령(65세)이 되어 영주 귀국하면서 국적 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외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적 회복 자체를 할 수 없다.

# 아랍에미리트에 한국문화원 설립한다 중동에 한류 확산 디딤돌 마련



▲ 3월 10일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재외 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 3월 5일 열린 한국·UAE 업무협약 서명식

중 동 지역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문화원이 들어선다. 이로써 전 세계 우리 문화원은 총 28곳으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와 문화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문화 교류 공간 설치와 문화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국 문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 교류의 확대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UAE뿐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 문화권에 한류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6일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열린 부산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에 대해 언급하며 “수도권의 문화창조융합센터, 세계 각지의 재외 한국문화원을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계해 영상 자료와 시장 정보는 물론 창작 아이디어의 활발한 공유가 이뤄지도록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내 개원 예정인 문화원은 현지 아부다비에 들어선다. 아랍에

미리트 정부가 중동 문화 중흥을 기치로 내걸고 문화 특구를 설치한 곳이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전시·체험, 우리 문화창조융합센터와 현지 문화원 방문자 간 실시간 쌍방향 소통 시스템 마련 등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할랄(Halal) 식품 진출과 관련, “알코올 저감 기술 등을 통해 전통 식품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수출업체와 바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하반기에 설립될 아랍에미리트 한국 문화원에 할랄 식품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하다’라는 뜻으로 이슬람교도는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만 먹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맺은 할랄 식품 MOU를 통해 오는 2018년 1조 6천260억 달러(약 1천8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슬람 문화권 먹을거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양국의 민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중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 모국과의 네트워킹에 힘입어 성공하는 고려인

김상욱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상무위원



지난해 한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기념해 '유라시아 횡단 자동차 랠리'에 나선 고려인들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출발해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시베리아 - 극동 - 북한을 거쳐 한반도 종주까지 1만km 이상의 대장정을 펼쳤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영화 필름과 방송으로 볼 기회가 연이어 있었다. 유명한 동포 영화인 송 라브렌티(84) 감독의 기록 영화 '고려사람'과 카자흐스탄 국영 하바르TV 방송을 통해서 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두 번째의 집'이 그것이다.

첫 번째 기록영화는 주로 소련시기의 고려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면 후자는 소련 해체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공한 고려인들의 이야기와 그 성공의 토대가 바로 평화로운 다민족 사회인 카자흐스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다큐멘터리였다.

기록영화 '고려사람'은 쿠르드족 할머니가 유창한 고려말(함경북도 육진 방언)로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고려인 집단농장에서 살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유창하게 고려말을 잘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송 감독이 93년에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 필름은 "우리 손자들도 개탕(보신탕) 잘 묵소!"라고 하는 쿠르드족 마리아 할머니의 생생한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고려인들보다 4~5년 뒤 강제이주를 당한 쿠르드, 체첸, 독일인들은 고려인 콜호스(집단농장)에 분산 배치되었다. 이들은 작업반장의 작업 지시를 알아듣기 위해서 고려말을 배워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다. 그들이 유창한 고려말을 구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고려인들의 근면 성실성을 존경했기 때문이

었다. 소비에트 70년 동안 나온 1천200명의 노력영웅 중 놀랍게도 750명이 고려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 준다.

밤을 낮 삼아 일하는 고려인들의 성실성에 감동한 쿠르드인, 체첸인, 독일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려말을 배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인 된장, 김치까지 좋아하게 되었다. 콜호스의 생산성은 인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민족들로 구성된 농장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큐멘터리 '두 번째의 집'은 성공한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카자흐스탄은 고려인들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성공한 동포 기업가가 유달리 많다. 카자흐스탄 50대 부호에 고려인이 5명이나 이름을 올릴 정도로 타민족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뭘까? 바로 '모국인 한국과의 교류를 통한 성공'이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고려인들은 첨단 기술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배웠다. 앞 세대들이 근면, 성실로 소비에트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던 것에 비해 이들은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경제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실을 바탕으로 한 모국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차세대 장학사업에 '성공한 고려인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전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포사회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

## 조규형 동포재단 이사장, 재외공관장들에게 협조 당부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4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각국 대사, 총영사 등 36명의 재외공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4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재외공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조 이사장은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각국 대사, 총영사 등 36명을 초청해 재외동포의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이사장은 “700만 재외동포가 역량을 결집해 모국을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써주시는 재외공관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제화 시대에는 재외동포가 우리 국력의 외연이고 상생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조병립 주파나마 대사는 “재외공관장들도 재외동포의 가치와 중요성을 늘 인식하며, 현실에 맞는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재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세계한상대회 내년 개최지 4월 평창 운영위서 결정

전 세계 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세계한상대회의 내년도 개최지가 다음 달 결정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4월 28~2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세계한상대회 24차 운영위원회 및 27차 리딩CEO 포럼을 개최한다”며 “이 자리에서 대회 유치를 신청한 도시를 심의해 개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과거 한상대회를 유치한 도시를 비롯해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도시 등 여러 곳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며 “운영위에서는 신청 도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개최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투명성을 강조했다.

운영위는 지난해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함께 오는 10월 13~15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한상대회 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동남아한상연합회,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등 동포 경제단체장 50명이 참석해 올해 대회장도 선출한다.

43명의 리딩CEO가 참여하는 포럼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국내 청년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동포 경제인이 해외 취업과 창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운영위에 참석한 한상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기 위해 경기장 등 주변 시설도 둘러볼 예정이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외 동포 기업인 3천여 명이 모여 네트워킹과 모국과의 경제 협력 등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의 장이다.

## 동포단체 · 한글학교에 153억 원 지원 확정

재외동포재단이 각국의 동포단체 시행 사업과 주말 한글학교 운영에 총 15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외동포재단은 민관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95개국 664개 동포단체 783개 사업 지원금으로 45억 원, 전 세계 117개국 1천875개 주말 한글학교 운영비로 108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전체 재외공관을 통해 실시한 2015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 수요 조사를 통해 총 96개국 855단체로부터 1천 257개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을 접수했다.

이번에 결정된 동포단체 지원금은 지원 요청액(약 294억 원)의 15%에 해당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83개의 사업에는 요청 금액 대비 평균 33% 정도를 지원한다.

주말 한글학교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4억 원(약 3.8%) 증액됐다.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학교당 평균 56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지원금 심의에서는 거주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국 주류사회와의 교류 활동을 통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고령·불우 동포 등 소외계층 지원, 소수민족 커뮤니티 간 교류 활동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년도 지원 사업 가운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했고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단체에 대해서도 배제, 또는 감액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에는 차세대 정체성 함양 사업과 불우·소외계층·노령 동포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면서 “상징적 수준의 금액이지만 재단의 지원이 불씨가 돼 동포단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동포사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포 청소년 교류 돕는 ‘OKFriends 봉사단’ 4기 출범



47로 임명된 51명의 봉사단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대전 찬샘마을 등에서 ‘OKFriends Volunteer 워크숍’에 참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3월 6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청소년이 한국과 교류하도록 돕는 대학생 봉사단인 ‘OKFriends Volunteer’ 4기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서는 국내 대학생, 한국에서 수학 중인 재외동포 대학생 등 새로 선발된 51명에게 봉사단 임명장을 증명했다.

봉사단은 오는 12월까지 재외동포 청년의 고국 방문 행사에서 통역, 안내, 상담 등을 맡는다. 봉사 활동 소감을 동포재단 월간지인 ‘재외동포의 창’이나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일도 담당한다.

봉사단은 이날 발대식을 마치고 대전 찬샘마을로 이동,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지구 시민론, 자원봉사론 등을 공부하는 워크숍에 참가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발대식에서 “국내외 청소년과 대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가치와 경험을 공유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글로벌 코리안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5명이 봉사단 활동을 수료했다.

## “참신한 학위논문, 창작 논문을 찾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관한 내국민의 이해를 돕고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2015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공모와 ‘2015 재외동포재단 논문 공모전’을 실시한다.

학위논문상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국내외에서 발표됐거나 학위 수여 또는 심사 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주제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대상이다.

논문 공모전에는 만 15~34세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 국민 인식 제고 방안 ▲재외동포 사회와 통일 ▲한류 현상 ▲한민족 정체성 함양 ▲한상네트워크 활용안 ▲모국과의 협력 강화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제의 창작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학위논문상 최우수상 1편에는 외교부 장관 상장과 300만 원의 학술 장려금을 수여한다.

우수상 2편(석·박사 각 1편)과 장려상 4편(석·박사 각 2편)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과 각각 200만 원(박사 우수상), 150만 원(석사 우수상)과 100만 원(장려상)이 주어진다.

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1편에는 상금 200만 원을 준다. 우수상(2편)과 장려상(5편)의 상금은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이다.

논문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5월 29일까지 신청한 뒤 9월 1~18일에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학위논문상 응모 마감은 7월 31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넷(www.korean.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 제기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재외동포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보이지 않는 태극기

변수현 일본 | 2014 재외동포문학상 초등 부문 우수상

나의 이름은 변수현이다.

제주도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일본에서 태어난 나를 위해 '작명소'에 가서서 귀하게 지어서 오신 나의 이름이다.

한국에서나, 식구들은 모두 나를 "수현아"라고 부른다. 그러나 내가 사는 일본에서 나의 이름을 소개할 때나 내 이름이 불릴 때면 나는 무척 바빠진다.

먼저는 정확한 발음으로 몇 번이나 말을 하여야 하고 이름을 쓸 때도 유심히 보고 잘 적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변수현입니다"라고 길게 말한다. 길어진 이름 덕분에 언제나 나는 주목을 받는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한국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길어진 내 이름처럼 나는 수다쟁이가 되어 한국을 열심히 알리곤 한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말이다.

왠지 모를 부듯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어쩌면 나는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의 존재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씨를 뿌리는 작은 한국인 같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길어진 나의 이름이 아주 좋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길어진 나의 이름에 책임을 지는 한국인 변수현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겠다.

나의 말 한마디가 또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마치 보이지 않는 태극기를 휘날리는 듯하다. 비록 나의 등 뒤에는 태극기를 달고 있지 않지만, 나의 마음속에 사랑스러운 태극기가 달려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스러운 태극기를 더 훌륭한 태극기로 키워야겠다. 나는 도쿄 네리마구(練馬區) 히카리가오카(光が丘)라는 곳에 살고 있다.

'히카리가오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은 빛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공원과 함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저마다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리워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도 그중에 하나이다. 어쩌면 이곳에 사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는 보이지 않는 '국기'를 저마다 품고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해 본다. 내가 사는 일본에서 한국을 더욱더 빛낼 수 있는 '씨앗'이 되어 이곳 히카리가오카 빛의 언덕에서 한국을 빛내는 나무가 되어 보리라고.

보이지 않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한국인 변수현입니다'라는 나의 나라가 준 이름으로 말이다. **창**



# 바른 말 고운 말

## 느리다 / 늦다

여행 책자를 보면 시차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우리나라보다 4시간 느리다'고 쓰여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4시간 늦다'고 돼 있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느리다'란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지 못하다는 뜻으로 '속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느린 사람'이라든가 '일 처리가 느리다'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늦다'란 말은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이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할 시기가 됐는데도 말을 잘 못할 때는 '말이 느리다'고 하지 않고 '말이 늦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4시간 느리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4시간 늦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갈매기살

식당의 차림표나 식당 문에 '갈매기살'이라고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살'을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갈매기의 고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매기살'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갈매기의 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의 한 부위를 가리켜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횡격막과 간 사이에 붙어 있는 살을 가리키는 것인데, 간을 막고 있다고 해서 '간막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뺏속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가로막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의 부위를 가리키면서 왜 '갈매기살'이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간막이살'이나 '가로막살'이라고 하는 것을 발음을 잘 못하다 보니 결국 '갈매기살'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횡격막의 격은 '간격, 격년, 격일'과 같은 단어에서처럼 사이를 띄우는 것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    |    |    |    |    |    |    |
|----|----|----|----|----|----|----|----|
|    | 1  |    | 2  |    |    | 3  |    |
| 4  |    |    |    |    | 5  |    |    |
|    |    |    |    | 6  |    |    |    |
| 7  |    | 8  |    | 9  |    | 10 | 11 |
|    |    | 12 |    |    |    | 13 |    |
| 14 |    |    |    | 15 |    |    |    |
|    |    |    | 16 |    | 17 | 18 | 19 |
| 20 | 21 |    |    |    | 22 |    |    |
|    |    |    | 24 |    |    |    |    |

- '대학(大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간단한 글이나 그림을 담아 보내는 서장(書狀)
- 샘구멍에서 솟아 나오는 맑은 물
-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
-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관측·조사·연구하는 기관
- 돌로 쌓은 탑
- 중국에서 양쯔 강 다음으로 긴 강
- 일반 두부보다 무르고 순두부보다는 더 굳게 만든 두부
- 군의 우두머리로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무관
-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해마다의 그날
-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 머리에 쓰는 물건의 하나. 예의를 차리거나 추위, 더위,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 ▶ 아래쪽 방향 열쇠

- 음력으로 1월 15일을 정월 ○○○이라 하죠.
- 배를 만들거나 고치는 곳
-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작은 천
- 뚫을 단 배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 지방 기상청 소속으로, 관할 지역의 기상 상태를

#### ▶ 오른쪽 방향 열쇠

-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
- 빨리 걸음. 또는 빠른 걸음
- 쌀을 담은 자루
-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령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 향을 피우는 자그마한 화로

#### ▶ 3월호 정답

|   |   |   |   |   |   |   |
|---|---|---|---|---|---|---|
| 별 | 동 | 별 | 대 | 권 | 태 | 기 |
| 동 |   | 불 | 한 | 당 |   |   |
| 대 | 장 | 야 | 구 | 질 | 구 | 질 |
|   | 신 | 성 | 공 |   | 조 |   |
| 고 | 구 | 려 | 갈 | 기 | 대 | 감 |
| 장 |   | 강 | 소 | 실 |   | 주 |
|   | 상 | 아 | 금 | 실 |   |   |
| 소 |   | 지 | 구 | 랑 |   | 미 |
| 문 | 짜 |   | 명 | 이 | 순 | 신 |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의 해돋이

## 홍어 사촌이면서 홍어와 다른 충남 당진의 간재미회 쫄깃하고 고소한 바다의 맛

전국에서 흔하게 나는 재료인데, 익숙지 않은 음식이 있다. 마름모꼴로 생긴 바닷물고기인 '간재미'다. 간재미는 표준어가 가오리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를 뿐이다. 보통 경상남도에서는 가오리,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간재미라고 일컫는다. 충청남도에서는 '갱개미'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간재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듯하다.

홍어와 간재미는 홍어목 가오리과에 속하는 사촌이다. 모양새도 비슷하다. 하지만 먹는 방법이나 맛은 천양지차다. 홍어는 대개 삭혀서 즐긴다. 접시에 담겨 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특유의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한 점 집어서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면 알싸한 기운이 콧속을 가득 채운다. 사람들 사이에 호호호가 갈리는 이유다.

반면 간재미는 발효시키지 못한다. 주문하면 수족관에서 헤엄치

는 녀석을 바로 꺼내 요리해 준다. 간재미는 껍질을 벗겨내고 적당한 두께로 썰어 회로 맛본다. 또 각종 채소와 함께 찌거나, 끓이기도 한다.

충남 당진은 간재미를 맛보기에 제격인 장소다. 어획량이 많아서 싱싱한 자연산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송산면 성구미포구가 간재미로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석문방조제 건너편의 장고항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다. 장고항은 인근의 왜목항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고즈넉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장고항의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간재미회를 판매한다. 심중팔구는 간재미회에 미나리, 오이, 사과를 더하고 초고추장으로 버무린 무침이다. 새콤하고 달콤한 양념과 아삭거리는 채소가 입맛을 돋운다.

일부 식당에서는 회무침에 국수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간을



한 소면 위에 간재미회를 얹어 비빔국수처럼 먹는다. 간재미회는 다른 생선에 비해 식감이 독특하다. 광어나 우럭 회에 견주면 쫄깃하고, 뼈째 썬 회보다는 질기지 않다. 먼저 살점이 목을 타고 넘어가고, 이내 물렁뼈만 질경거리게 된다. 구수한 맛과 싱그러운 바다의 내음이 함께 느껴진다.

간재미는 찌개로 즐겨도 풍미가 나쁘지 않다. 냄비에 큰 덩어리를 넣고 미나리·배추·버섯·대파·고추를 올려 끓이는데, 매운탕보다는 맑은 탕이 낫다. 맑은 탕도 국물이 시원하고 칼칼하다. 찌개에 들어간 간재미는 익혀져서 한결 부드럽다. 젓가락을 대면 살이 쉽게 갈라지는데, 국물이 배어 있어 짭조름하다.

간재미는 사철 어획되지만, 산란을 앞둔 3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에는 뾰뾰하고 살집이 없어서 별로다. 암놈과 수놈이 있는데, 암놈이 가시가 적고 통통해서 더 맛있다. 수놈은 꼬리 옆에 생식기 두 개가 달려 있다.

한편 봄철에 장고항을 찾았다면 별미인 실치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멸치를 닮은 아주 작은 생선으로, 봄에만 회로 먹을 수 있다. 간재미회처럼 채소와 곁들여 즐긴다. 실치는 서해에서 3월 말부터 잡히기 시작해 5월 중순까지 두 달간 먹을 수 있는 계절식품이지만 4월 초순부터 잡히는 실치가 회로 먹기에 적당하다. **참**



삼교호 관광지에 있는 함상공원 전경

Tip

### ▶ 당진 솔외성지



당진 솔외성지(우강면 솔외로 132)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다.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와 부친 등 일가 4대의 순교자가 살았던 곳으로 가톨릭계에선 '신앙의 못자리'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가톨릭 전파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다.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은 솔외성지 내 김대건 신부 동상.

문의 : 여행사 노랑풍선(☎ 1544-2288)

### ▶ 당진시 여행 정보

#### • 당일 여행 코스

솔외성지, 신리성지, 함덕성당 순례 →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삼교호 관광지 → 삼교호 함상공원 → 왜목마을 → 함덕수리민속박물관



#### • 관련 웹사이트

당진시청 [www.dangjin.go.kr](http://www.dangjin.go.kr)

함덕수리민속박물관 <http://hdmuseum.dangjin.go.kr>

왜목마을 [www.waemok.kr](http://www.waemok.kr)

#### • 대중교통 : 버스

서울 : 강남·남부·동서울 터미널 ⇒ 당진행 1시간 30분 소요

인천 : 종합버스터미널 ⇒ 당진행 1시간 소요

#### • 식당 정보 :

해안선횃집(당진 장고항) 041-353-6757

해오름해물칼국수(당진시 석문면) 041-358-5468

# 동포 청소년 700명 고국 연수 참가자 모집

세계 각국의 동포 청소년을 국내로 초청해 한민족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외동포재단은 만 13~23세인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700여명을 선발해 오는 7~8월 7박 8일 일정으로 독립기념관 방문, 농촌 봉사 활동, 전통 문화 체험, 국내 청소년과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숙식비, 경비, 의료보험 등을 지원한다.

신청 서류는 4월 17일까지 거주국 재외공관별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코리아넷 웹사이트(www.korean.net)나 전화(☎82-2-3415-0175)로 할 수 있다.



## 제17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동포 작가의 문단 '등용문'으로 인지도를 넓혀온 재외동포문학상이 제17회 지원작을 공모한다. 전 세계 재외동포가 문학적 지평을 넓히고 한글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취지다.

성인 부문에서는 시·수필·단편소설,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부문에서는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다. 부문별로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편을 선정하며 한글학교 중에서는 수상작이 많은 2곳을 뽑아 특별상을 준다. 상금은 대상 300만원을 포함해 총 3천530만 원을 수여한다.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대회도 실시한다. 청소년이 재외동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려는 취지로, 동포와 관련한 자유 주제로 지은 글을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상, 장려상 등 12편을 선정해 장학금과 상장을 준다.

지원작은 오는 5월 12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넷(www.korean.net) 참조.

## “재외동포 이야기 담아 UCC 응모하세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15 재외동포재단 UCC 공모전'을 연다.

'역사 속 재외동포'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통일과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담아 1~3분 분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과 재외동포 모두 응모할 수 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9월 18일까지 동영상을 내면 된다.

수상작에는 최우수상 200만 원 등 상금과 상장을 준다.

문의는 전화(☎02-3415-0093)나 이메일(akw1011@okf.or.kr)로 하면 된다.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 : wakar@yna.co.kr

shaorong@okf.or.kr

(원고 A4 한 장 이내)

#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OK**
- ❖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 **OK**
- ❖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 **OK**



##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행정자치부

EUROPE  
124,000

CIS  
491,000

CANADA  
205,000

USA  
2,091,000

CHINA  
2,573,000

JAPAN  
892,000

MIDDLE EAST  
25,000

AFRICA  
10,000

SOUTHEAST ASIA  
296,000

OCEANIA  
188,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11,000

“700만 재외동포,  
세계속의 한국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